

## 여대생의 폭식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모형의 검증\*

손 은 정†

계명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성격적 차원의 완벽주의, 문화적 차원의 체면민감성, 사회적 차원의 사회비교, 그리고 신체상 차원의 신체감시 및 신체불만족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다차원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서울과 대구 지역의 여대생 3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체면민감성은 완벽주의와 사회비교 간의 관계를, 완벽주의와 신체감시 간의 관계를, 그리고 완벽주의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둘째, 사회비교는 체면민감성과 신체 감시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셋째, 신체감시는 체면민감성과 신체불만족, 그리고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넷째, 신체불만족은 체면민감성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그리고 신체감시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지나치게 높게 인식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체면민감성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비교가 높아지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주의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되며 신체불만족이 높아져 결국 폭식행동 경향이 많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인 체면민감성이 부정적인 신체상과 폭식행동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폭식행동, 완벽주의,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신체감시, 신체불만족

\* 이 연구는 2012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손은정,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E-mail : ejsohn@kmu.ac.kr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섭식장애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섭식 장애 증상은 30%이상 높아졌으며, 섭식 장애 증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75%나 증가하였다(국민일보, 2011). 이러한 섭식 장애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 10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는데(Burt & Hendrick, 2001/2005; Kashubeck-West & Mintz, 2001), 이는 여성들이 외모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직장에서 능력에 대해 인정받는 정도나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임인숙, 2004; Fredrickson & Rogerts, 1997). 실제로 20대 여성들의 경우 직장에서 외모 때문에 직종 및 직급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헤럴드경제, 2011),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

섭식장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 중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섭식장애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개입방법들에 대해 모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폭식행동은 단일 원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Polivy & Herman, 2002; Tylka & Subich, 2004). 따라서 폭식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위험요인들(risk factors)에 대해 성격적 차원이나 사회문화적 차원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Polivy & Herman, 2002).

먼저 성격적 차원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완벽주의나 자아존중감 등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왔다(김하영, 박기환, 2009; 오경자, 정현강, 2008; Bardone-Cone et al., 2007; Fairburn, Cooper, & Shafran, 2003).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완벽주의는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김하영, 박기환, 2009; 손은정, 2010; 오경자, 정현강, 2008; Bardone-Cone et al., 2007; Mackinnon, et al, 2011; Sherry & Hall, 2009).

Hewitt와 Flett(1991)에 의하면, 완벽주의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는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폭식 행동은 세 가지 완벽주의 차원들 중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ewitt, Flett, & Ediger, 1995; Sherry & Hall,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신체 불만족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moderate)하였다(Brannan & Petrie, 2008).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자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폭식과 구토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Brannan & Petrie, 2008).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적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최근에는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완벽주의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매개 모형 검증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herry와 Hall(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에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불일치와 같은 변인들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손은정(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게 되며 이러한 자기비난이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을 증가시켜 결국 폭식행동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폭식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에서는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체형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불만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체중 조절과 함께 폭식행동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Striegel-Moore & Cachelin, 2001). 외모를 중시하는 대중매체를 접촉하는 기회가 더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지만(윤중희, 성수광, 진기남, 2006; Harrison, 2003; Thompson & Stice, 2001), 대중매체를 접촉하는 횟수보다는 마른체형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어느 정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가가 신체불만족 및 폭식행동에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Thompson & Stice, 2001). 또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얼마나 비교하는가라는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에 따라 신체불만족 및 폭식행동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rning, Kurmm, & Smitham, 2006;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 흥미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구 연구결과와는 달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얼마나 내면화하는가 보다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얼마나 자주 비교하는가가 신체불만족 및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손은정, 2008).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사회비교는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타인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사회비교이론을 폭식행동 유발 과정에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마른 몸매의 모델을 보게 되면 각 개인이 자신과 그 모델을 비교하게 되며, 모델과 자신을 비교하는 정도가 클수록 폭식행동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 사회비교는 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Corning et al., 2006).

세 번째로 신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폭식행동의 위험 요인들 중 가장 직접적이면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신체불만족(body dissatisfaction)임을 밝혔다. 즉, 신체불만족은 폭식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변인들과 폭식행동 간을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Moradi, Dirks, & Matteson, 2005; Polivy & Herman, 2002; Striegel-Moore & Cachelin, 2001). 자신의 신체에 대해 관찰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신체감시(body surveillance) 역시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iggemann & Kuring, 2004; Piran & Cormier, 2005), 신체감시는 특히 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radi et al., 2005; Noll & Fredrickson, 199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식행동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으나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폭식행동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외모와 마른 체형에 대한 관심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편이다. 세계 22개국을 비교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가장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 조절 행동의 비율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Wardle, Haase, & Steptoe, 2006). 또한 4개국을 비교한 청소년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체중조절을 시도한 한국 여학생의 비율은 중국(48%)과 일본(46.2%), 미국(33.1%)보다 훨씬 높은 67.1%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우리나라의 마른 체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압력은 과도한 체중조절 행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섭식장애의 비율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있다(국민일보, 2011).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폭식행동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한, 체면, 눈치, 정과 같은 특성들이 연구되어져왔다(최상진, 2000). 그 중 외모 관련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이 체면민감성(social-face sensitivity)이다(서용한, 오희선, 전민지, 2011; 정명선, 김혜진, 2009).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체면민감성은(이충원, 김효창, 2006; 최상진, 김기범, 2000) 과시소비성향이나 명품선호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정명선, 김혜진, 2009),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신감을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명품 소비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서용한 등, 201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는 체면민감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체면민감성이 높을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대해 의식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경향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체면민감성이 높을수록 마른 체형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신체불만족과 함께 폭식행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로 폭식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각각의 차원들이 폭식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으나,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통합한 다차원적인 모형을 통해 폭식행동의 특성을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폭식행동에 대한 성격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그리고 신체적 차원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위험요인들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폭식행동을 유발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체면민감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격적 요인, 사회적 요인, 그리고 신체상 요인들을 통합한 다차원적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함으로써, 위험요인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각 차원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격적 차원에서는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폭식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다(김하영, 박기환, 2009; 오경자, 정현강, 2008; Bardone-Cone et al., 2007; Mackinnon, et al, 2011; Sherry & Hall, 2009). 최근 완벽주의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의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는 외모 관련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체면민감성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체면민감성이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신체불만족과 함께 폭식행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대중매체의 영향,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나 사회비교 등의 여러 가지 변인들 중,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신체불만족이나 폭식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사회비교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손은정, 2008). 넷째, 신체상 차원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고 관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체감시와 신체에 대

한 평가에 따라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신체불만족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요인들을 통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차원적 모형은 그림 1, 2와 같다. 완벽주의라는 개인 내적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면민감성이나 사회비교라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완벽주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매개를 통해 신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 사회비교는 신체 불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비교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신체불만족 간을 매개였다(손은정, 양난미, 2009; Bessenoff, 2006; Dittmar & Howard, 2004; Tiggemann & McGill, 200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신체감시와 신체불만족이라는 신체상의 매개를 통하여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신체상 중에서도 신체감시는 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연구모형에서는 체면민감성 및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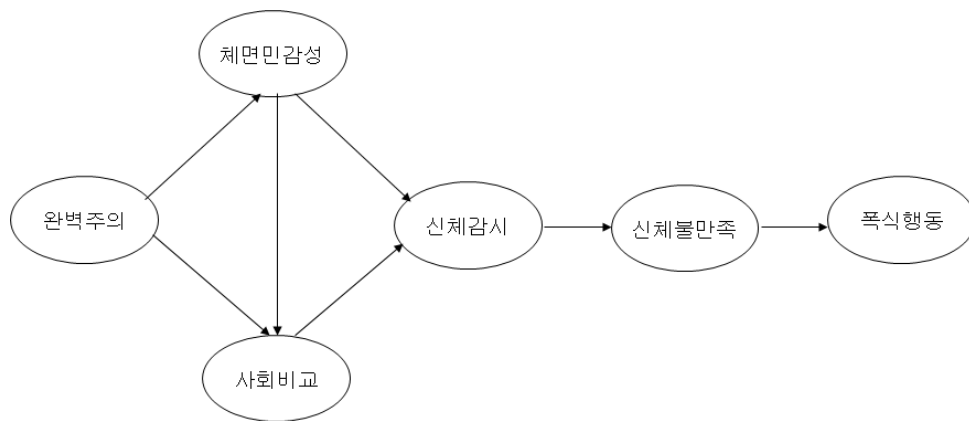


그림 1.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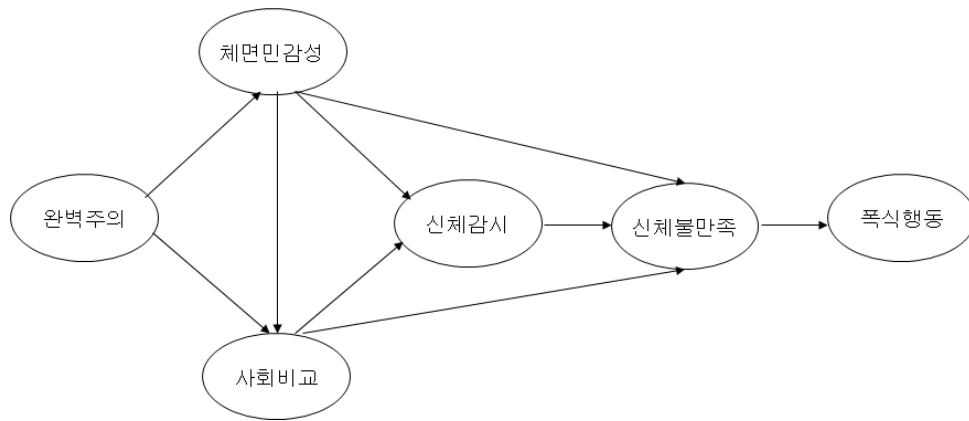


그림 2.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쟁모형

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신체감시가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체면민감성이나 사회비교가 외모 관련 행동이나 신체불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서용한 등, 2011; 정명신, 김혜진, 2009; Dittmar & Howard, 2004; Tiggemann & McGill, 2004) 체면민감성이나 사회비교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신체불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쟁모형에서는 체면민감성과 사회비교가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신체감시가 체면민감성 및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을 부분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체면민감성과 사회비교는 완벽주의와 신체감시 간을 매개하는가? 둘째, 신체감시는 체면민감성 및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을 매개하는가? 셋째, 신체불만족은 신체감시와 폭식행동 간을 매개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섭식장애는 청소년기 후기나 성인기 초기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Striegel-Moore & Bulik,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섭식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식행동의 특성과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폭식행동의 위험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및 대구 소재 대학교 여학생들 323명에게 질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총 323명의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31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20.80세(표준편차 2.62)이었으며, 키는 평균 162.31cm(표준편차 4.35), 몸무게는 평균 53.16kg(표준편차 7.19)이었고,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평균 20.17(표준편차 2.41)이었다.

### 도구

####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하고 한기연(1994)이 한국 대학생과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재타당화한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의 3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하위척도의 15 문항을 사용하였다. Hewitt와 Flett(1991)의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 oriented perfectionism; 예, 일단 일을 시작하면 끝마칠 때까지 쉬지 않는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 oriented perfectionism; 예,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최고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예, 나에게 대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기가 어렵다)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Hewitt와 Flett(1991)가 요인분석한 결과 각 15개 문항씩 3개 요인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6, .82, .87이었고, 한기연의 연구(1994)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4, .73, .76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내적 합치도는 .84이었다

#### 체면민감성

체면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1999)이 개발한 체면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인들의 체면의식에 관한 것으로, 사회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신분, 지위, 인격, 도덕성, 그리고 능력에 대한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고 있다. 창피의식성 체면, 자괴 의식성 체면, 사회격식성 체면의 세 가지 하위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정말 그렇다’(7)의 7점 척도이다. 이충원과 김효창(2006)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 사회비교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최윤희(2003)가 번안한 Gibbson과 Buunk(1999)의 사회비교 경향성 질문지(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 11문항을 사용하였다. INCOM은 Festinger(1954)가 사회비교의 기저로 생각한 3가지 동기 중에서 자기평가 동기를 측정하고자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능력 면에서 비교하는 능력요인 6문항(예, 나는 항상 나의 행동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한다)과 의견면에서 비교하는 의견요인 5문항(예,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이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려고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인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Gibbson과 Buunk의 연구(1999)에서 내적 합치도는 .83, 최윤희(2003)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역시 .83으로 나타났다.

#### 신체감시

신체에 대한 감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의 하위 척도 중 ‘신체에 대한 감시(body surveillance)’를 손은정(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부터 ‘매

우 그렇다'의 7까지 7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부터 56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관찰하고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종종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걱정한다', 또는 '하루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를 들 수 있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9로 나타났으며, 손은정(2007)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77로 나타났다.

### 신체불만족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McKinley와 Hyde(1996)의 대상화된 신체 의식 척도(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s)의 하위 척도 중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손은정(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7까지 7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질 것이다', 또는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몸집(사이즈)이 되지 못할 때 부끄럽게 느껴진다.'를 들 수 있다.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 폭식행동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mith와 Thelen(1984)이 DSM-III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Thelen, Farmer, Wonderlich, 그리고 Smith(1991)가 DSM-III-R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윤화영(1997)이 번안한, 신경성 폭식증 검사(Bulimia Test; BULIT) 중 폭식행동을 측정하는 2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항상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식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Thelen 등(1991)의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이었다.

### 분석방법

(a) 예비 분석으로서 모든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b)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예비 분석 결과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서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완벽주의,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신체감시, 신체불만족, 그리고 폭식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분석하여 자료가 정상성 가정을



표 1.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N =361)

변인	1	2	3	4	5	6
1. 완벽주의						
2. 체면민감성	.49**					
3. 사회비교	.34**	.51**				
4. 신체감시	.21**	.45**	.51**			
5. 신체불만족	.44**	.37**	.38**	.42**		
6. 폭식행동	.28**	.26**	.34**	.37**	.59**	
왜도	.12	.06	-.19	-.33	.06	1.06
첨도	.53	.15	.76	.81	-.38	.85
평균	55.03	70.56	38.00	37.93	26.88	57.76
표준편차	11.45	11.27	5.95	6.82	8.55	19.27

\*\*p < .01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단변량 측정 변인의 왜도가 < 2이고 첨도가 < 7일 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의 변인들의 정상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았다.

**매개모형 검증**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신체감시 및 신체불만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 (1988)의 절차에 따라, 먼저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각 측정도구에 대해 지표변수를 구성하였다. 지표변수

의 구성방법은 각 문항 묶음의 요인계수가 유사하도록 문항의 요인계수 크기에 따라 각 문항묶음에 할당하는 방법과 무선허당방법이 있는데(홍세희, 2009), 본 연구에서는 무선허당방법을 사용하여 지표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신체감시, 그리고 신체불만족은 각각 세 개의 지표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폭식행동은 네 개의 지표변수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chi^2=349.31(df=137)$ 였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95, 그리고 TLI .93이었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신뢰구간 .06-.08)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변수의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모든 변수  $p<.001$ ). 따라서 완벽주의,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신체감시, 신체불만족, 그리고 폭식행동은 각 측정변수들에 의해 잘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표준화 계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1	1.00			.8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2	1.27	.08	16.85	.8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3	1.07	.07	15.54	.81***
체면민감성				
체면민감성 1	1.00			.82***
체면민감성 2	1.18	.07	16.70	.85***
체면민감성 3	1.10	.07	16.74	.85***
사회비교				
사회비교 1	1.00			.69***
사회비교 2	1.31	.11	12.05	.83***
사회비교 3	1.54	.13	11.60	.77***
신체감시				
신체감시 1	1.00			.78***
신체감시 2	.89	.07	12.02	.72***
신체감시 3	.80	.06	12.72	.78***
신체불만족				
신체불만족 1	1.00			.84***
신체불만족 2	1.30	.08	16.81	.85***
신체불만족 3	1.20	.09	14.05	.73***
폭식행동				
폭식행동 1	1.00			.86***
폭식행동 2	1.01	.04	23.61	.92***
폭식행동 3	1.07	.04	24.29	.93***
폭식행동 4	1.14	.05	22.22	.89***

주. N=361. \*\*\* $p < .001$

**구조모형**

구조모형 검증에서는 완벽주의와 폭식행동 간의 관계를 체면민감성, 사회비교, 신체감시

그리고 신체불만족이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특히, 신체감시가 체면민감성과 신체불만족, 그리고 사회비교와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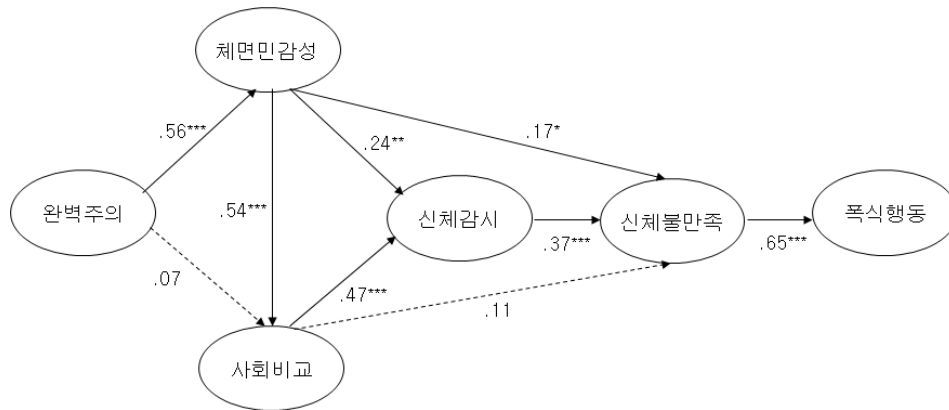
	$\chi^2$	df	$\Delta\chi^2$	$\Delta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398.46	145			.94	.93	.07(.07-.08)
경쟁모형	388.49	143	9.97	2	.94	.93	.07(.07-.08)

신체불만족 간을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과 부분매개 하는 경쟁모형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연구모형은  $\chi^2=398.46$  ( $df=145$ )였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94, .93,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신뢰구간 .07-.08)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경쟁모형 역시,  $\chi^2=388.49$  ( $df=143$ )였으며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94, .93,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신뢰구간 .07-.08)로 나타나, 두 모형 모두 유사하게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가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두 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으로,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도 수준  $\alpha=.05$  수준에서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2차이가 5.99이상의  $\chi^2$ 차이를 가져와야 하는데, 분석결과 두 모형 간의 차이는  $\Delta\chi^2(2)=9.97$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1$ ). 이는 경쟁모형에서 추가된 체면민감성에서 신체불만족 간의 경로, 그리고 사회비교에서 신체불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자료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모형 비교 결과 부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연구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쟁모형을 분석한 결과, 완벽주의에서 체면민감성 간의 경로( $\beta =.56, p<.001$ ), 체면민감성과 사회비교 간의 경로( $\beta =.54, p<.001$ ), 체면민감성과 신체감시 간의 경로( $\beta =.24, p<.01$ ), 체면민감성에서 신체감시로의 경로( $\beta =.47, p<.001$ ), 체면민감성에서 신체불만족으로 가는 경로( $\beta =.17, p<.05$ ), 사회



\* $p<.05$ , \*\* $p<.01$ , \*\*\* $p<.001$

그림 3.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쟁모형(부분매개모형) 경로도

표 4.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효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완벽주의	→ 체면민감성	.56	.	.56
완벽주의	→ 사회비교	.07	.30 (.21-.41)	.37
완벽주의	→ 신체감시	.	.31 (.22-.39)	.31
완벽주의	→ 신체불만족	.	.25 (.15-.35)	.25
완벽주의	→ 폭식행동	.	.16 (.09-.25)	.16
체면민감성	→ 사회비교	.54	.	.54
체면민감성	→ 신체감시	.24	.25 (.16-.41)	.49
체면민감성	→ 신체불만족	.17	.24 (.13-.37)	.41
체면민감성	→ 폭식행동	.	.27 (.17-.35)	.27
사회비교	→ 신체감시	.47	.	.47
사회비교	→ 신체불만족	.11	.17 (.09-.29)	.28
사회비교	→ 폭식행동	.	.19 (.06-.34)	.19
신체감시	→ 신체불만족	.37	.	.37
신체감시	→ 폭식행동	.	.24 (.10-.34)	.24
신체불만족	→ 폭식행동	.65	.	.65

주. ( ) 신뢰구간

비교에서 신체감시 간의 경로( $\beta = .47, p < .001$ ), 신체감시와 신체불만족 간의 경로( $\beta = .37, p < .001$ ), 그리고 신체불만족과 폭식행동( $\beta = .65, p < .001$ ) 간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벽주의와 사회비교 간의 경로( $\beta = .07, p > .05$ ), 사회비교에서 신체불만족 간의 경로( $\beta = .11, p > .05$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완벽주의는 체면민감성과 사회비교의 매개를 통해 신체감시와 신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감시는 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적용하여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봄으로써, 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 검증 결과 신뢰구간에서 모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간접효과가 유의함이 밝혀졌다(홍세희, 2009). 이를 통해 체면민감성은 완벽주의와 사회비교, 완벽주의와 신체감시, 그리고 완벽주의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며, 사회비교는 체면민감성과 신체감시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감시는 체면민감성과 신체불만족 및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그리고 신체불만족은 체면민감성과 폭식행동 및 신체감시와 폭식행동 간을 유의하게 매개함을 알 수 있다.

## 논 의

폭식행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영향에 의해 유발되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Polivy & Herman, 2002; Tylka & Subich, 2004) 폭식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양한 차원들을 포괄하여 검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마른 체형에 대한 관심과 체중조절행동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Wardle et al., 2006) 우리나라의 어떠한 문화적 특성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완벽주의는 체면민감성·사회비교·신체감시·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의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김하영, 박기환, 2009; 오경자, 정현강, 2008; Bardone-Cone et al., 2007; Mackinnon, et al., 2011), 완벽주의가 다른 변인들의 매개를 통해서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손은정, 2010; Sherry & Hall, 2009). 이것을 통해 완벽주의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체면민감성과 사회비교가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결국 폭식행동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인 체면민감

성은 선행 연구에서 폭식행동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성격적 차원의 완벽주의, 사회적 차원의 사회비교, 그리고 신체상 차원의 신체감시 및 신체불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폭식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체면민감성이 외모관련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로서(서용한, 오희선, 전민지, 2011; 정명선, 김혜진, 2009), 체면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형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고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비교도 더 많이 하며 신체감시 및 신체불만족도 더 높아져 결국 폭식행동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 사회비교에서 신체감시 간의 경로나 사회비교에서 신체불만족 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체면민감성에서 신체감시 간의 경로 또는 체면민감성에서 신체불만족 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폭식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를 살펴보면, 이전 연구들에서 폭식행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신체불만족의 총 효과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65)(Moradi et al., 2005; Polivy & Herman, 2002), 그 다음으로 총 효과가 큰 변인이 체면민감성(.27)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위험요인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인 체면민감성이 신체상 및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체상 차원의 신체감시는 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폭식행동에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감시는 폭식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신체불만족의 매개를 통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Moradi et al.,

2005; Noll & Fredrickson, 1998; Tiggemann & Kuring, 2004; Piran & Cormier, 2005)나 신체불만족이 폭식행동의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이전 연구들(Moradi, et al., 2005; Polivy & Herman, 2002; Striegel-Moore & Cachelin, 200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신체불만족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폭식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인 체면민감성이 폭식행동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체면민감성이 폭식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폭식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문화적 특성과 섭식장애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주로 문화적 적응(cultural acculturation)이나 인종적 정체성(ethnic identity)과 같은 변인들과 섭식장애 증상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Phan & Tylka, 2006). 이러한 변인들은 문화적 특성은 나타내지만 섭식장애 증상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이 섭식장애의 유발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해 주지 못하였다(Cummins, Sommons, & Zane, 2005).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면민감성이라는 변인은 신체상이나 폭식행동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인이기에 폭식행동에 대한 문화적 원인의 규명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즉, 다른 사람의 의

식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체면민감성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의식을 많이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고 폭식행동이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의 여성들과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체면민감성이라는 문화적 특성이 실제로 서구 사회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체면민감성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서구 사회와 차이를 나타내는지 서구 사회의 여성들과 우리나라 여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Polivy & Herman, 2002; Tylka & Subich, 2004) 선행연구들에서는 폭식행동에 대한 다양한 차원들을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차원인 완벽주의, 문화적 차원인 체면민감성, 사회적 차원인 사회비교, 신체상 차원인 신체감시와 신체불만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리적 기제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 내적 특성인 성격적 특징은 사회문화적 특성의 매개를 통해 신체상 차원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부정적인 신체상으로 인해 폭식행동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요구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 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더 비교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찰과 주의집중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신체불만족이 높아져 결국 폭식행동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폭식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과 신체상 차원에서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폭식행동을 나타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체면민감성을 완화 시킴으로써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냐 부정적인 신체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국 폭식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위험요인들 간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실험연구나 중단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폭식행동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체면민감성의 경우, 실험연구나 중단연구를 통해서 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인 체면민감성을 문화적 특성으로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폭식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서구 사회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른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선행연구들에서 섭식장애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나타낸 정서조절이나 정서표현방식과

같은 변인들이 문화에 따라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이상선, 2007; Cummins et al., 2005). 셋째,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이 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Kashubeck-West & Mintz, 2001), 남성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남성들의 섭식장애가 여성들의 섭식 장애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지고 있다(Bearman & Stice, 2008).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 살펴본 위험요인들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위험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섭식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Striegel-Moore & Bulik, 2007).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신체불만족이나 폭식행동의 정도가 높지 않은 일반적인 여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섭식장애를 나타내는 여성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폭식증상을 심각하게 보이는 섭식장애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여대생들의 폭식행동과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1). 다이어트 후폭풍, 거식·폭식 증 5년 새 30% 증가. 2011년 7월 20일자.  
 김하영, 박기환 (2009). 완벽주의, 충동성, 섭식 절제와 폭식행동의 연관성. 한국심리학회

- 지: 건강, 14(1), 73-88.
- 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여대생의 절실 및 폭식행동에 대한 자기-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73-91.
- 서용한, 오희선, 전민지 (2011). 체면이 명품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류산업학회지, 13(1), 25-31.
- 손은정 (2007). 공격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 손은정 (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손은정 (2010). 완벽주의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비난, 신체비교,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03-1122.
- 손은정, 양난미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성형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왜곡의 매개 역할. 상담학연구, 10(2), 1245-1258.
- 오경자, 정현강 (2008). 이상 섭식 행동에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 성향과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41-55.
- 윤종희, 성수광, 진기남 (2006). 미디어 노출이 성형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2), 177-182.
- 윤화영 (1997). 여대생의 폭식행동, 우울 및 귀인양식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선 (2007). 폭식행동의 이중-경로 모형에 관한 검증: 부정 정서 경험 측정과 부정 정서 조절 기대 구분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883-902.
- 이충원, 김효창 (2006).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17-30.
- 임인숙 (2004).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 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165-189.
- 정명선, 김혜진 (2009). 체면민감성, 과시 소비 성향, 패션 명품 선호도가 패션 명품 제품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7(2), 189-202.
- 조선일보 (2012). 남자들의 착각...외모 자신감 여자보다 높다! 2012년 1월 25일자.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185-202.
-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정, 체면민감성과 스트레스, 문제대응방식간의 관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28-44.
- 최윤희 (2003). 스트레스, 통제소재 및 사회비교 경향성이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 비교 조사 (한, 미, 일, 중 4개국 비교). 연구보고 10-R1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기연 (1994).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 논문.
- 헤럴드경제 (2011). 20대 여성, 직장 내 차별 1 순위는 외모. 2011년 11월 1일자.
- 홍세희 (2009).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6: 구조방정식모형 초급. S & M 리서치 그룹.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rdone-Cone, A. M., Wonderlich, S. A., Frost, R. O., Bulik, C. M., Mitchell, J. E., Uppala, S., & Simonich, H. (2007). Perfectionism and eating disorder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7(3), 384-405.
- Bearman, S. K., & Stice, E. (2008). Testing a gender additive model: The role of body image in adolesc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8), 1251-1263.
- Bessenoff, G. R. (2006). Can the media affect us? Social comparison, self-discrepancy, and the thin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3), 239-251.
- Brannan, M. E., & Petrie, T. A. (2008). Moderators of the body dissatisfaction-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relationship: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263-275.
- Burt, V. K., & Hendrick, V. C. (2005). 여성의 정신건강. (남범우, 서정석, 류은정, 최귀순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전은 2001에 출판).
- Corning, A. F., Krumm, A. J., & Smithan, L. A. (2006). Differential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women with and without eating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38-349.
- Cummins, L. H., Sommons, A. M. & Zane, N. W. S. (2005). Eating disorders in Asian populations: A critique of current approaches to the study of culture, ethnicity, and eating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4), 553-574.
- Dittmar, H., & Howard, S. (2004).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social comparison tendency as moderators of media models' impact on women's body-focused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6), 768-791.
- Fairburn, C. G., Cooper, Z., & Shafran, R. (2003).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eating disorders: A "transdiagnostic" theory and treat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5), 509-528.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edrickson, B. L., & Roger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Harrison, K. (2003). Television viewers' ideal body proportions: The case of the curvaceously thin woman. *Sex Roles*, 48(5), 255-264.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Flett, G. L., & Ediger, E. (1995). Perfectionism traits and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eating disorder attitudes, characteristics, and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8(4), 317-326.
- Kashubeck-West, S., & Mintz, L. B. (2001). Eating disorders in Women: Etiology,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5), 627-634.
- Mackinnon, S. P., Sherry, S. B., Graham, A. R., Stewart, S. H., Sherry D. L., Allen, S. L., Fitzpatrick, S., & McGrath, D. S. (2011). Reformulating and testing the perfectionism model of binge eating among undergraduate women: A short-term,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630-646.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V.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0-428.
- Noll, S., & Fredrickson, B. L. (1998). Medational model linking self-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 Phan, T., & Tylka, T. L. (2006). Exploring a model and moderators of disordered eating with Asi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36-47.
- Piran, N., & Cormier, H. C. (2005). The social construction of women and disordered eating proced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49-558.
- Polivy, J., & Herman, C. P. (2002). Causes of eating disorder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187-213.
- Sherry, S. B., & Hall, P. A. (2009). The perfectionism model of binge eating: Tests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 690-709.
- Smith, M. C., & Thelen, M. H. (198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est for bulim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5), 863-872.
- Striegel-Moore, R. H., & Cachelin, F. M. (2001). Etiology of eating disorders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5), 635-661.
- Striegel-Moore, R. H., & Bulik, C. M. (2007). Risk factors for eating disorders. *American Psychologist*, 62(3), 181-198.
- Thelen, M. H., Farmer, J., Wonderlich, S., & Smith, M. (1991). A revision of Bulimia Test: The BUILT-R.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1), 119-124.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Tiggemann, M., & Kuring, J. K. (2004). The role of body objectification in disordered eating and depressed moo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3), 299-311.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23-44.
- Tylka, T. L., & Subich, L. M. (2004). Examining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314-328.
- Wardle, J., Haase, AM., & Steptoe, A. (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4), 644-651.
- West, S. G., Finch, J. F.,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rk, CA: Sage.
- 1차원고접수 : 2013. 1. 24.  
심사통과접수 : 2013. 3. 04.  
최종원고접수 : 2013. 3. 23.

## **An examin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model for binge eating among college women**

**Eunjung S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multi-dimensional model for binge eating including the personality dimension as a perfectionism, the cultural dimension as a social-face sensitivity, the social dimension as a social comparison, the body image dimension as a body surveill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Participants were 316 college women recruited in Deagu and Seoul provinces. The results of hypothetical model on the binge eating showed that (a) social-face sensitivit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social comparison, perfectionism and body surveillance, and perfectionism and body dissatisfaction, (b) social comparison mediated the relation of social-face sensitivity and body surveillance, (c) body surveillance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al-face sensitivity and body dissatisfaction, and social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d) body dissatisfaction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al-face sensitivity and binge eating, and body surveillance and binge eating. It shows that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lead to social-face sensitivity and social comparison, which influence body surveill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and finally they cause binge eating. Especial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face sensitiv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beginning and maintenance of binge eating.

*Key words* : binge eating, perfectionism, social-face sensitivity, social comparison, body surveillance, body-dissatisfaction